전문분야연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지난 2. 13.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공지한 후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분야연구회가 2000년에 창설된 이래 중복가입은 예규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회 임원진 등이 커뮤니티에 회원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전산상 권한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구회에 중복가입한 판사님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지난 2. 13.자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조치는 현행 예규의 범위 내에서 연구회 활동의 충실 도모, 경비 보조 등 각종 지원의 객관성 및 형평성 담보,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많은 검토 끝에 도출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판사님들께서 현행 예규의 개정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판사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분야연구회는 2000년 창설 당시 법관들의 연구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종류, 조직 등이 결정된 뒤 약 17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분야 연구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법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틀을 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1법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의 적정한 개수, ②연구성과의 활용도 증대, ③학계와의 교류 강화, ④전문분야연구회(15개)와 커뮤니티(119개)의 구별 기준 정립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회 회장, 간사 등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사님들의 제안이 있으면 사법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안내해 드린 중복가입 해소 방안(2017. 3. 6. 이후에도 중복가입된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은 그 시행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판사님들의 중지를 모으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전문분야연구회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법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임○○ 올림